

브라스 밴드 Funny Band &

팝페라 그룹 Maria Queens와 함께 하는



즐거움 음악회

■ 일 시 : 2013. 5. 30.(목) 19시 ■ 장 소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4층 대강당



자아실현을 위한 교육복지원
Gyeonggi Provincial Center for Education Welfare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여성 팡페라 그룹 “Maria Queens”



현대적인 감각으로 클래식 새 장을 열고 있는 여성 팡페라 그룹 Maria Queens는 어려서부터 정통 클래식 성악을 공부한 빅토리아, 마리, 유나의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을 신세대다운 자유분방한 외모 만큼이나 신선하고 새로운 음악을 추구한다. 이들의 음악은 동서양을 아우르는 새로운 팡페라 장르를 선보이고 있으며 화려한 외모와 젊은 감각뿐만이 아닌 진정한 실력과 열정으로 뭉쳐 있다. 목소리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표현해내야 하는 소프라노들, 그리고 지금은 화려한 팡페라 가수를 꿈꾸는 그녀들에게서 Maria Queens의 미래를 기대해 본다.

▶ 주요 프로필

- 국립극장 토요문화마당 초청공연
- 세종문화회관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을 위한 음악회' 초청공연
- 국립중앙박물관 토요음악회 초청공연
- 통영 국제음악제 초청공연
- 경기도 시흥시 주최 시민을 위한 음악회 초청공연
- 용인시 문화예술원 금요예술마당 초청공연
- 조선회텔 Macau Food Festival 초청공연
- 롯데호텔 Wine Party 초청공연
- 송파구청 초청공연
- 메리초화재 임원총회 초청공연
- 싱글 앨범 'Fantasy' 발매

▶ 프로그램 구성

- 아리랑
- You raise me up
- 오페라의 유령
- Love
- 태평가
- 소울멜로디
- 한오백년
- 아름다운 나라

▶ 소요시간

19:00~19:40 (약40분)

※프로그램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섯 남의 FunFun한 Music Story “Funny Band”



Funny Band는 젊고 신선한 감각으로 클래식의 새로움을 추구하며 관객과의 친밀한 무대를 이끌어 온 팀으로, 클래식 갖고 있는 지루하고 딱딱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관객들에게 새로운 개념의 브라스 퍼포먼스를 제공해 왔다.

Funny Band의 음악은 일반 대중이 생각하는 딱딱한 음악보다는 보다 그들과 친밀하게 호흡하면서 같이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것이다. Funny Band는 여러가지의 레퍼토리를 가지고 연주하고 있으며 클래식 뿐만 아니라 재즈나 가요 등을 연주하고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 주요 프로필

- 지하철 퓨전콘서트 초청공연
- 불우이웃돕기 자선공연
- LG 아트센터 초청공연
- 삼양 월드컵 경기장 초청공연
- 과천 한마당축제 초청공연
- 울진 송년음악회 초청공연
- 발렌타인 데이 단독콘서트
- 서울역 고속철도(KTX) 개통식 축하공연
- 태백산 철쭉제 축하공연
- 과천 한마당축제 초청공연
- 광주 비엔날레 개막 축하공연 외

▶ 프로그램 구성

- Just a closer walk
- Beale street blues
- Sing Sing Sing
- In the mood
- William Tell Overture
- Clear the line
- 악기 소개
- When the saints go marching
- Rock's roll medley

▶ 소요시간

19:45~20:30 (약45분)

※프로그램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